

참여연구원 칼럼



조선학교가 우리학교인 이유

이 향 진 (릿교대학교)

오랜만에 “우리학교”에 갔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있는 조선 중고급학교다. 70년대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21개였던 조선학교가 현재는 45개이다. 11월 중순의 일요일 아침, 문화교류제를 한다길래 느지막히 길을 나섰다. 단풍이 한참 이쁘게 들었을 교정에서 만날 아이들 생각에 맘이 설렸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니 야키니쿠 냄새가 달려든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를 열창하는 여학생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들려온다. 교문을 들어서자 무대는 부채춤으로 바뀌었다. <한 여학생의 일기>, <박치기>처럼 북한이나 재일 영화에 곧잘 등장하는 소품 장면은 동네 잔치다. 가나가와 조선학교 교정에 모인 사람들도 웃고 떠들며 아이들의 재롱을 즐기 있었다. 몇 년 전보다 일본사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식후의 나른함을 쫓으며 간식부츠를 기웃거리다 중급반 교실로 걸음을 옮겼다.

“조선학교는 미니북한”이라는 2016년 한국 어느 신문의 컬럼처럼 일본 주류 미디어와 상업영화들은 조선학교를 김일성부자 초상화가 걸린 북한의 어느 교실처럼 그린다. 하지만 김부자의 초상화가 유치원,

초중급반 교실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 90년대 재일 영화 <고> 에 등장하는, 험악하게 생긴 교사의 거친 말투나 교내 폭력도 일본이나 한국, 재일 가릴 것없이 그들의 기억이다. 외동일까, 형제가 있어도 하나나 둘? “다카라즈카” 보물같은 귀염둥이들이 제기차기를, 윷놀이를 하자며 손을 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인 납치사건을 빌미로 조선학교를 “스파이 양성 학교”로 매도하고, 2012년에 실시된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도 배제시켰다. 이에 조선학교는 고립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개편된 새 교과서들은 북한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교재도 소개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소니아 량의 재일동포 연구서 제목처럼 “일본의 북한사람들”이 아니다.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다. 90년대 후반까지 아이들은 지하철을 타도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도 차별받지 않고 한글을 배울 수 있기에 조선학교를 다닌다. 교실 밖 복도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묵직한 주제. 어둡다. 그림 속의 아이는 바다 속 같은 심연에서 있고, 출구가 없는 방에 움추리고 앉아 있다. 미로에 갇힌 듯한 아이들의 자화상들이 이어진다.

참여연구원 칼럼

있다. 복도를 지나 고급반 교실로 들어서자, 잠시 잊었던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혁명의 역사가 눈에 들어온다. 때마침 교정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들려온다. 문화교류제에 같이 간 친구와도 잠시 침묵이 흐른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문구 앞에서 친구에게 물었다. 그녀는 조선학교 출신의 미국대학 교수. 이주 20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녀는 주저없이 자기 땅은 태어난 곳, 일본이란단다. 20년이 훨씬 넘은 외국 생활이지만 필자에게 자기땅이 한국이듯이.

하지만 태어난 곳이,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에게 조선학교는 “우리 학교”이다. 60년대말 귀국선을 탄 친척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결정을 반대한 어머니 덕분에 일본에 남아 다행이라는 그녀, 해방 후 귀국을 한 부모 덕분에 재일동포가 아닌 나. 한국도 재일동포사회도 사는 게 힘겨워 서로의 존재를 잊고 지내던 시절,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많은 얘기를 변명처럼 서로에게 늘어놓았다.

우리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소통과 변화시간을 현재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다. 김일성부자의 초상화 밑에 일본말로 낙서를 하고, 문재인과 김정

은 정상회담, 김어준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사진, 한국 최신 뉴스가 도배되어 있는 교실에서, 트와이스와 BTS를 들으며, 일본 우익들의 일상적인 독설과 마주치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기억이 맞았다. 가나가와 “우리 학교”는 키가 크고 우람한 숲이 병풍처럼 교정을 둘러 싸고 멀리 보이는 요코하마의 높은 빌딩들을 낮설게 한다. 교실 참관 후 교정으로 내려오니 멀리서 주체탑이 아장아장 걸어온다. 박영이 감독의 아들이 뒤집어 쓴 종이모형이다. 박감독의 <하늘색 심포니> (2016)는 이바라키 우리학교 아이들의 북한 방문기를 그렸다. 다음주에는 그 아이들 또래일 전국 재일동포 대학생들 모임, 유학동*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민족만이 아닌, 성소수자와 젠더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들이다. 4분의 1의 재일동포 손자 사진을 보여주던 호주 국적의 수잔도 다시 만나고 싶다. 우리학교 이야기를 각양각색으로 하는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싶다.

*) 편집자주: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의 약칭

한반도서 가장 아픈 철원… “평화로 치유되길” 전쟁 공포 서린 월정리역·노동당사·백마고지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몸이 안 좋으면 가장 아픈 곳을 찾아야 한다. 적절한 치료와 약물로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픈 곳은 강원도 철원이다. 일제는 한반도의 귀한 광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동해안 북부 일대에 철도를 연결했다. 일본인 농장주의 수탈을 못 이겨 많은 간도 등지로 떠난 주민들

이 적지 않다. 한국전쟁기에는 철원 주변 고지 탈환을 위해 싸우다 수 십 만 명의 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사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상처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일제 침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 영혼들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월정리역 “철마는 달리고 싶다”



<사진> 한국전쟁 직전만 해도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철원 월정리역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전 월정리역 일대는 강원도 교통 중심지였다. 1914년 서울~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돼 시민들은 연천역~신탄리역을 지나 철원역에서 금강산행 전철을 향했다. 지금은 경원선, 금강산선 모두 끊겼다.

월정리역은 경원선의 간이역으로 남방한계선에 근접한 최북단에 자리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문을 닫았다. 철원평야를 두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곳은 철원과 김화·평강군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다. 전쟁 당시 총탄으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다. 지금은 고철이 된 열차 하나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사의 흔적을 말해주듯 곳곳에 녹이 쓸었고, 총탄 자국이 선명하다. 주변에는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석이 관광객을 쓸쓸히 반겼다.

사람들은 철마를 그리워했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는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 구간을 연장하겠다고 착공식을 연다고 발표했다. 전쟁 중 접경 구간이 끊어진 경원선 철도를 복원한다는 조치였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에 이어 세 번째 남북철도 연결 구상이었지만 당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로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기획기사

이곳에 다시 훈풍이 분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사업 관련 실무회담이 열리면서다.

경원선 복원사업도 기대된다. 계획대로라면, 철원은 한국전쟁 전 강원도 농·수산물 원산향을

통해 주변 나라로 수출하던 물류거점지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 수탈과 전쟁, 분단을 거치면서 공포의 도가니가 된 이곳에 다시 철마가 달릴지 관심이 쏠린다.

공산당 탄압 진원지 ‘노동당사’



<사진> 양상한 외벽을 드러낸 노동당사

노동당사는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민통선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1,850㎡ 면적에 지상 3층 무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각방 구조로 남아있다. 2·3층은 허물어져 골조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 1층 방은 공간이 매우 협소해 1~2명이 취조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사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다 2000년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는 ‘평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우성과 광도원이 주연한 영화 ‘강철비’ 촬영지로 스크린에 비쳐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전쟁 참화로 검게 그을린 3층 건물의 앞뒤엔 총·포탄 자국이 선명하다. 손으로 만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앙상하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역설적으로 건물에 서린 아픔 탓이다.

노동당사는 철원이 북한 땅이던 1946년, 조선노동당이 철원군 당사로 지어졌다. 소련 군정기로, 소련식 건축 양식을 따랐다. 드넓은 평야에 외소하게 자리한 당사는 공포와 악명을 떨쳤다. 당국은 건물을

지을 때 성금으로 지역민들에게 1리(里)당 쌀 200가마씩 거뒀고, 노동력을 동원했다. 내부 작업은 비밀유지를 위해 공산당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했다.

해방부터 전쟁 발발까지 반공 인사들이 이곳에서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았다. 뒤편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유골과 실탄, 철사줄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참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당사 좌우에는 경찰서와 법원도 있었다. 노동당사 왼쪽 정자 옆에는 여전히 당시 경찰서 터가 남아있다.

힘없는 시민들을 탄압하던 노동당사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5월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다. 반공교육의 선봉으로 활용될 법하지만 각종 예술제와 음악, 문화제 등이 열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장소로 쓰인다. 주변에는 철원의 대표 농산물과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다.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기보다 과거 교통과 물류 중심의 위상, 나아가 평화를 되찾으려는 상인들의 몸부림으로 보였다.

전사자 영혼 떠도는 '백마고지'



<사진> 드넓게 펼쳐진 철원평야 사이에 백마고지가 보인다.

노동당사 맞은편에 '걷기 좋은 길'로 유명한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이 있다. 노동당사에서 출발해 362m 높이의 소이산 허리를 걷다 다시 노동당사로 돌아오는 코스다. 소이산은 한국전쟁 이후 민통선에 묶여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했다.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철원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숲 녹색길은 지뢰꽃길(1.3km)을 비롯해 생태숲길(2.7km), 봉수대오름길(0.8km)로 단장됐다. 정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녘을 비롯해 끝없이 펼쳐지는 철원평야가 숲길의 백미다. 전쟁기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백마고지도 볼거리다.

백마고지는 광활한 청원평야 일대와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주요보급로로 지리적 요충지였다. 치열한 생탈전이 벌어졌는데 심한 포격으로 고지의 모습이 백마(白馬)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중국 인민지원군 장용후이가 1952년 10월 6일 병력 4만 여 명을 이끌고 철원 서북방 395고지를 공격했다. 김종오 소장이 지휘

하는 국군 제9사단 예하 병력 2만 명이 맞섰다. 9일 동안 12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중공군 1만 여명, 국군 약 3,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쏟아진 포탄만 30만 발이 넘었다. 전투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10월 15일 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철원평야 중앙에 자리한 백마고지는 아직 유해발굴을 끝내지 못했다. 휴전상태로 언제든 총·포탄이 오가갈 수 있는 위험지대이기 때문이다. 떠도는 전사자 영혼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철원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아픈 역사가 깃든 철원에 마침내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 평양에서 마주한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19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천명했다. DMZ 일대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한국전쟁 당시 유해 발굴이 한창이다. 남북한의 작은 실천이 주민들에게 공포의 위험을 해소하고, 전사자 영혼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으면 한다.

* 본 기사는 11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엄현숙(북한대학원대학교)

결핍에 대한 북한 주민의 마음의 변화: 『조선신보』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 30권 2호(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노출되는 결핍의 층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채워나가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조선신보』는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북한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조선신보』는 결핍이 북한 주민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의 징후적 읽기를 가능케

한다. 배급에서 비롯된 결핍은 경제적 결핍을 내포하게 되었고, 결핍의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일부 사회주의 이론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결핍에서 시작된 가치관 변화는 북한 주민의 경제 의식을 변화시키고 외적 가치를 지향하게 하며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주민의 마음은 과거 숨기고자 했던 것에서 결핍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연구단 동정

▶ 본 연구단과 문화연대가 함께한 평화답사 '분단 앓을 걷기'는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도시 철원에서 11월 20, 21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이 조성된 신철원 지역에서는 분단의 기억을 찾기 어려웠지만, 탄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노동당사, 끊어진 금강산선 전기철도교량, 현대식 한탄대교 옆에 나란히 서있는 남북합작다리 승일교까지, 답사자들은 구철원 지역을 걷고 또 걸으며 뚜렷이 새겨진 분단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지난 11월 13일 코리밀라 커뮤니티 초청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포트릭 오투마(코리밀라), 김동진(트리니티 칼리지) 박사의 강연을 통해 아일랜드의 식민, 분단, 평화 프로세스의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단과 청중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갈등의 중첩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아일랜드 사례에서 한반도의 경험을 비추어보고 남북한의 통합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본 연구단은 지난 11월 16일, 정기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박동민 서울대 건축학과 강사의 '북한 현대조선식 건축의 탄생: 담론과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조선식 건물의 기능과 구조, 역사 및 현대 북한 건축물의 특징과 의미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일정

국내학술회의
**“한반도의 분단과 통합:
 유럽, 아프리카 사례와의 비교”**

주최:  SSK남북한마음통합센터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일시: 2018년 12월 20일 (목)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개회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축사: 최진우 (한양대학교)

세션1. 한반도의 분단과 통합
 (13:15 - 14:30)

- 사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 발표1: 차영재 (서울대학교)
 "In prestige we trust: The perception of prestige and trust in political leaders at the 2018 inter-Korean summit"
- 발표2: 이하연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토론: 장대익 (서울대학교) 권영미 (성균관대학교)

세션2. 유럽의 분단과 통합
 (14:45 - 16:00)

- 사회: 엄한진 (한림대학교)
- 발표1: 박선희 (서울대학교)
 "난민 위기인가, 난민 보호 위기인가"
- 발표2: 김새미 (한양대학교)
 "난민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
- 토론: 안병익 (대구대학교)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세션3. 아프리카의 분단과 통합
 (16:15 - 17:30)

- 사회: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 발표1: 유혜림 (서울대학교)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후 갈등과 통합: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 발표2: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아프리카의 종족갈등과 포용적 정치제도"
- 토론: 한준성 (한양대학교) 김동석 (국립외교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 12/20 (목) 오후 1시~5시 30분(장소: 북한대학원대 대회의실), 북한대학원대 SSK 남북한마음통합사업센터와 한양대 평화연구소의 공동주최로 국내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합: 유럽, 아프리카 사례와의 비교"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먼저 심리학적 조망을 통해 살펴본 2018년 현재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인식과 이에 따른 남북한 관계의 해석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유럽과 아프리카의 분단과 통합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한반도의 분단과 마음/사회 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12월 14일(금),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2018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제2회의(15:40-17:20) “북한 전략노선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개최됩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한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획패널을 주관하며, “어버이수령의 ‘이름’과 북한 사회의 ‘원자’”(박세진, 서울대), “북한 주민의 사회적 역할 연구”(엄현숙, 북한대학원대),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중층성”(최순미, 아주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

실험과 실천

지금 여기, 남북의 마음 알기 북토크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종로구 동네책방인 역사책방, 이음책방과 함께 올 겨울 모두 여섯 번의 북토크를 가집니다. 북토크는 “지금 여기, 남북의 마음 알기”를 주제로 6회 동안 현재적 함의가 큰 다양한 주제들, 특히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획으로 구성됩니다.

토크들은 변화하는 현재의 북한 풍경과 사람들, 남북이 지금 만들어가야 할 평화의 모습과 방법, 민간 남북 교류 중 보건의료 협력과 북한의료에 대한 비교적 이해, 한국전쟁기 북한 문학예술에서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재현, 1960년대 그리고 김정은 시기 북한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남북 서로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이슈를 포괄합니다. 모든 토크는 동네책방들의 분위기에 맞게, 저자의 이야기를 보다 쉽고 편하게 듣는 동시에 대담자와 함께 꾸려 풍성하게 진행하며 청중들에게도 개방해 넓고 다채로운 논의의 장으로 마련합니다.

SSK 북토크는 필름토크, 사진토크, 뮤직토크와 함께 “남북한마음체계의 통합”이라는 센터의 지향과 성과를 보다 열린 형태로 공유 확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2018.12.12. (수) 저녁 7시 역사책방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의 저자 임동우(프라우드 건축 대표), 대담자 남영호(신한대 교수)
- 두 번째 2018.12.21. (금) 저녁 7시 역사책방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저자 이삼성(한림대 교수), 대담자 윤석준(서강대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 번째 2019.1.9. (수) 저녁 7시 역사책방 <붉은 의료: 모스크바, 평양, 그리고 서울>의 저자 신영전(한양대 교수), 대담자(섭외중)

이음 북토크

북한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1
지금 여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음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임동우 (프라우드 건축 대표) 지음

남영호 (신한대 교수) 대담

신간 <도시화 이후의 도시: 서취주의 도시에서 미래를 찾다>도 함께 나눕니다.

일시: 2018년 12월 12일 저녁 7시
장소: 서촌 역사책방
저자: 임동우 (프라우드 건축 대표)
대담자: 남영호 (신한대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이음 북토크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이음 북토크

북한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북토크 2
지금 여기 남북의 마음 열기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어떤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이삼성 지음

윤석준 (서강대) 대담

12월 21일 (금) 저녁 7시
역사책방

저자: 이삼성 (한림대)
대담자: 윤석준 (서강대)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이음 북토크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토론에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의 대칭성에만 집중하면 교류의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며, 남북 간 언론 중재 기구 설립에 대해선 "북한 관련 오보집 발간 등 남한 언론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영, " 남북 언론교류, 北언론 객관적 이해 선행돼야" / 연합뉴스 2018.12.12.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에서는 크게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갑부'와 외화벌이 등으로 자본을 축적한 개인인 돈주가 신흥 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부를 만한 계층이 아직 형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양극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문수, "北, 5명중 1명꼴 휴대전화... 치킨-맥주 배달 앱까지 등장" / 동아일보 2018.11.09.

논평을 쓴 이는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기성'이다. 북한은 박사급 이상 가운데 학문적 공헌이 큰 학자에게 후보원사·원사 등의 명예칭호를 부여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리기성은 북한 정치경제 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그의 이름으로 이 시점에 논평을 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구갑우, "명사십리가 인파십리 되는 날은" / 한겨레21 2018.11.04.

양 교수는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조치와 매우 유사"하고 "김정일 시대보다 크게 진전된 개혁개방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21개 경제개발구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양 교수는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정부 주도 시장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화가 북한식 경제개혁"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현재 국면은 비핵화든 개혁개방이든 최고지도자 1인이 고군분투하는 양상"이라며 "최고지도자 의도를 실현할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층 형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그에 대비해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 베트남식 개방 모델 원해...남쪽, 대북경협 주도권을" / 한겨레 2018.11.21.

칼럼

그럼에도 영국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역사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 듯했다. 그랬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었으리라. 하긴 이런 태도가 굳이 영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주춤하자 미국 일각에서는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의 권위에 기대 확인되지 않은 심증을 ‘사실’인 양 떠들어댄다. 이미 알려진 상황을 최근 북한의 이중적 움직임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는 쉽사리 망각된다. 북한을 불신하는 세력은 공고하며, 북한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는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막강한 세력과 그들의 의식체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쉽게 지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게임이지만 우리에게겐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만들어진 사실, 외면된 외침” / 한겨레 2018.11.14.



한 ‘국제정치학자’의 현재적 과거읽기

이삼성(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2』, 한길사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I. 뉴턴적 자연과학과 철학의 시대에 하나의 초월적 주제가 탄생한다. 바로 ‘국가’다. 국가는 인간주체에 버금가는 이성을 가진 집합적인 사회적 주체로 등장한다. 특히 국가권력과 봉건적 질서와 종교적 독점이 유지되던 프랑스에서는, 자연과학의 발전이 실제 경험세계와 연관되었던 영국에서와 달리, 데카르트의 철학적 합리주의를 탄생시켰고, 이 철학적 합리주의는 ‘국가이성’(raison d'état)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후발 산업화 국가들에서 합리적 ‘국가이성’은 국가행동의 기본원칙, 국가의 행동원리로 개념화된다. 이 국가들이 마치 우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질서가 이른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다.

18세기에 ‘기계론적 법칙’으로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세력균형 개념의 발견과 ‘국제’(international)라는 용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국제관계학은 자연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는, 주류 사회과학 내부에서 공식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19세기에 들어 역사와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고유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국민국가 내부였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 비로소 국제관계학은 대학의 독립적 학과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리고 특히 사회과학에서 역사를 제거하고 ‘현재로의 편향’을 주도한 미국에서는 정치학의 하위분과로 그 위치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른바 미국식 ‘정통’의 국제관계학사는 대부분 편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카(E.H. Carr)의 1939년 책 Twenty Years' Crisis, 1919-1939와 모겐쏘(H. Morgenthau)의 1948년 저작 Politics Amon Nations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정통의 흐름에서는 국제관계학을 국제 ‘정치학’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프만(S. Hoffman)의 지적처럼, 국제관계학(International Relations)은 미국적 사회과학(An American Social Science)이 ‘되어 버렸다’(Hoffman 1977). 국제관계학이 미국의 패권을 관리하는 정책과학으로 발전한 사정을 정확히 지적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적 사회과학이라는 언명은 미국적 사회과학 이전의 국제관계학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는 국제관계학의 흐름을 국제관계학의

탈(脫)/반(反)/비(非) 미국적 사회과학이었고 현재도 공론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적 기준을 통해 정통과 이단(異端)을 구분할 때, 정통이 추구하는 국제관계학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국제정치학이 된다.

이 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을 추구하는 미국식(신)현실주의는 전쟁과 같은 ‘반복적’ 현상의 기계적 법칙을 탐구하는 국제관계의 뉴턴적 ‘물리학’이다. 카에 따르면 이상주의는 ‘연금술’이고, 현실주의는 ‘과학’이다. (신)현실주의 이론가인 모겐쏘와 월츠(K. Waltz)는 세력균형과 같이 이론가 자신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국제정치학의 보편적, 객관적 법칙을 탐구하고 그 법칙을 ‘반영하는’ 또는 ‘설명하는’ 이론을 모색하려 한다. 이 국제관계의 물리학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은 고정된 배경이고, 그 이론에서 역사와 공간의 형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뉴턴적 의미에서의 시간이 부재한(timeless) 절대공간으로서 국가들의 체계는 (신)현실주의의 기본가정이다.

미국적 사회과학인 국제정치학의 철학적 기초인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는 ‘주어진’ 토대다. 따라서 그 국제정치학의 철학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었고, 철학의 저발전은 불가피했다. 철학이 부재한 또한 이론에 대한 성찰인 메타이론을 고려하지 않는, 국제관계의 뉴턴적 물리학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그리고 그에 기반한 계몽과 진보-을 가진 국제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과학이다.

II.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자로 분류되는 이삼성의 1,500쪽에 달하는 책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2』(이하 『동아시아』)는 미국적 국제관계학의 이론을 수입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적 국제관계학에 대한 본격적 비판은 아니지만, 그 이론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와 접합하려는 고투의 성과다. 역사와 이론의 접합은, 미국적 국제관계학의 반성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미국 옛 서부에서의 목장주와 농장주의 갈등처럼, 역사학자는 과거를 통해 가치, 관념, 제도의 기원을 발견함으로써 현재를 조명하고자 했다면, 사회과학자는 인간행태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한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를 자료로 활용해 왔다는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Elman and Elman 2001).

칼럼 연재

『동아시아』는 보편에서 특수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다.

요컨대 전통시대 2천 년간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한반도가 관련된 전쟁과 평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억의 정치 현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시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평화를 규율한 규범과 제도에 대해 그 질서 나름의 창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 근대적 야만의 질서로 보거나 서양이 비서양 사회에 대해 적용한 식민주의 질서의 동양판 정도로 간주하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처했던 전쟁의 구도와 배경을 해석하는 데에서도 한반도인들 자신의 사유와 행동의 패턴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첫째, 국제관계학에 내재해 있는 오리엔탈리즘 비판이다. 둘째, 모든 역사쓰기에서 드러나듯 ‘현재적 과거’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는 변화한다”(노에 게이치 2009). 이삼성의 말이다.

21세기에 본격 들어선 지금 우리의 국제정치학이 당면한 과제 역시 동아시아 질서에서 전쟁이 초래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최소화하는 데 한국이 기여할 백년대계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다. 흔히 얘기하듯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인들에게 국가들이 동원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체계적인 폭력으로서의 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절실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제정치학자 이삼성의 역사쓰기는, 현재적 과거와 미래적 과거의 복원이다.

따라서 이삼성의 작업은, 국제관계에서 진보가 가능한가를 묻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에는 더 좋은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규범성이 담겨 있다. 미국적 국제관계학 가운데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동일시하는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에게 국제정치는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가 불가피한 차악(次惡)인 비극의 세계다. 현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국제구조가 무정부상태(anarchy)라는 가정을 공유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제도를 매개로 힘의 정치가 제어되는 국제관계의 진보를 상상하곤 한다.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에 따라 국제관계의 내용과 형태-현실주의적 세계와 자유주의적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문제설정은, 국제관계에서 진보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한다. 이삼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적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III.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라는 부제를 달

고 『동아시아 1』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겨냥하고 있다. 그 표적은 ‘한미동맹’이다.

필자의 생각은 향후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우리의 대전략에서 ‘한미동맹’은 하나의 요소일 뿐 그것 자체가 우리의 대전략의 전부 또는 그 중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이 우리의 백년대계 대전략의 중추로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되고 만다. 특정한 국가와의 동맹이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승격될 때 벌어지는 현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동맹 그 자체가 전략적 수단의 개념을 넘어서 본질적인 목적으로 되고 만다. 둘째,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 이외의 다른 사회와 국가들을 타자화(他者化)하는 경향을 수반한다.

동맹이 전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될 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담보할 전략에 대해 부단히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없게 된다. 『동아시아 1』의 서론에 등장하는 이 결론과 같은 언명을 위해, 이삼성은 긴 우회적 길을 걷는다. 그 길을 따라가 보자. 『동아시아 1』의 1장은 “동아시아 질서의 기원”이다. “서북 실크로드 회랑’가 오르도스”가 출발점이다.

오르도스는 중국 중원에 그 회랑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마당과 같은 곳이다. 이 회랑의 남쪽으로는 해발 2천 미터 이상의 티베트 고원지대가 전개되고, 북쪽으로는 역시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알타이 산맥이 동서로 병풍을 둘러치고 있는 형세이다.

『동아시아』는 왜 실크로드 회랑과 오르도스에서 시작하는 것일까. 이삼성은 25살의 미국청년 라티모어(Owen Lattimore)가 1925년에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다. 라티모어의 책 『터키스탄으로의 사막 길』을 매개로 “우리들의 현재의 죽은 배경”으로 간주되던 실크로드를 보며, 동아시아 역사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없었던 초원의 유목사회와 중원의 농경사회의 경계를 발견한다. 『동아시아』가 내륙 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 2천 년간 한반도인들이 상대했던 중국대륙의 실체는 단일하지 않으며”, “중국대륙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한 것의 요체가 ‘중국’이라는 하나로 뭉뚱그려진 실체의 팽창과 수축의 결과가 아니라, 북방민족들과 중국 중원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설정은 『동아시아』를 두 결론에 이르게 한다. 첫째,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는 농경사회와 유목사회가 만나는 ‘중국-북방축’과 같은 농경문화권인 중국과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이 속한 ‘중국-동남방축’의 관계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세계질서의 제도적 표현인 ‘조공책봉체제’는, 한대(漢代)에 중화제국이 초원의 유목제국과 만

칼럼 연재

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해 명청대에 고전적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조공책봉체제에서 중국-북방축의 동적이었다면, 중국-동남방축은 정적이었다.

둘째,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전쟁에 돌입한 것은 중국 중원을 장악한 중화제국과 한반도 국가 사이에 제3의 세력이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3각구도가 형성되었을 때, 즉 중국과 한반도의 사이에 제3의 세력이 등장하였을 때”라는 것이다. 전자의 결론은 후자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동아시아』는 두 번째 결론에서 강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역사쓰기가 현재적 과거읽기임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동아시아 3각구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하나의 ‘법칙’은, 『동아시아』가 2천여 년의 질서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 법칙은 행위자의 선택에 의존적이었다.

내륙 아시아권 세력들은 중화질서적 관계양식을 하나의 안보 레짐으로 받아들였을 뿐, 그 질서와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행위양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한반도인들은 그 질서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미화하는 중화주의 또는 소중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화질서에 대한 이념적 헌신은 제3의 세력 및 제3의 세계에 대한 과도한 무관심과 함께 그 세력들에 대한 뿌리 깊은 타자화를 동반하였다. 그것은 견실한 현실주의 또는 실용주의적 외교의 실종과 민중의 비참한 피해로 귀결되기 쉬웠다.

『동아시아』는 전통시대의 한반도인들이 가지곤 했던 소중화주의를, 지금-여기 한국인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한미동맹과 등치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신화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 FTA를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려 했던 정치사회세력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호명되어 ‘한국발’ 중국위협론을 생산했던 주체였다. 『동아시아』는 역사의 법칙을 회고하며, 미국의 선택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질서의 변동 속에서, 한국의 선택이 미국 이외의 국가를 타자화하는 것일 때, 한반도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의 백미다.

IV.

『동아시아』가 발견한 법칙은 ‘초역사적’이다. 과거와 현재의 3각구도처럼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가 발생할 때, 어느 한쪽에 편승(bandwagoning)하는 선택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동

아시아』의 역사쓰기는, 힘을 축으로 제도와 관념을 보충하는 미국적 국제관계학을 세련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책으로 읽힐 수도 있다. 『동아시아』가 차용한 전형적 미국적 이론을 고려할 때, 예정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적 세계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인류 전 역사를 관통하는 국제질서의 양태로, ‘세력균형’과 ‘위계적 질서’를 상정한다. ‘국가’는 이 두 질서의 단위다. 위계적 질서는, 공식적 위계질서와 비공식적 위계질서로 구분된다. 비공식적 위계질서는, 이차대전 이후의 패권체처럼 영향권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미의 바나나 공화국과의 보호령 관계로 나뉜다. 공식적 위계질서는, 제국-식민주의 체제와 ‘중화질서’로 구분된다. 『동아시아』는 “조공책봉체제를 중국의 속방으로 불리면서도 실질적인 내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는 일종의 ‘안보 레짐’ 성격을 외교제도”로 정의한다. 이 조공책봉체제는, 세력균형에 기초한 주권적 관계나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관계가 아닌, “동아시아의 제3의 양식이”고 그 나름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적 세계질서는, “군사정치적 지배가 곧 공식적인 직접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수탈도 동반하지 않지만, “상하 위계질서를 제도화한 공식적 외교규범”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제도’와 ‘규범’이 힘의 정치를 제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형태론’은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근대 국민국가체제를 전제로 한 국제정치이론을 이른바 ‘전통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동아시아』는 국민국가체제를 과거에 투사함으로써 국제질서 형태론에 중국적 세계질서를 포함시키고, 이 질서를 “위계적 안보 레짐”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페어뱅크(J. Fairbank)의 지적처럼, 조공책봉체제는 “등급화되고 동심원적인 위계”(graded and concentric hierarchy; 『동아시아』는 concentric을 중앙집중적으로 번역하고 있다)일 수 있다. 즉 서양의 중세처럼 국민국가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권력공간이 중첩된 지역질서이기 때문에 단어 의미 그대로 국가간 관계, 즉 국제관계는 아닐 수 있다. 둘째, 니시지마 시다오는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요소로 화이사상(華夷思想)과 봉건제를 지적한 바 있다. 『동아시아』에서 봉건제는 실증상태다. 봉건제라는 생산양식에 기반한 국민국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근대 국민국가(체제)의 경제적 토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를 과거에 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칼럼 연재

국민국가체제를 전통 시대에 투사함으로써 『동아시아』는 민족 담론을 지지하고 탈민족 담론을 비판하는 논리적 귀결을 내장하게 된다. 『동아시아』는 그로스비(S. Grosby)를 동원하여 민족을, “시간적 깊이와 경계지어진 영토라는 두 축 위에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의 민족적 정체성은, “근대 이전의 시간 속에 뿌리박고 있는 손에 잡히는 정체성의 재료들로부터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정체성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지만, 근대적 국제정치이론을 전통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특수성을 천착하지만, 결국 이론의 한계 속에서 초역사적 법칙을 찾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동아시아』의 근본적 결함이 민족담론을 시공을 초월하여 정당화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민족에 대한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동아시아』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탈민족 담론을 비판하고 있다. 탈민족 담론은 『동아시아』가 지적하듯, 현재적 과거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했다. 『동아시아』의 주장이다.

역사인식의 균열과 다양성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중이 퇴조하는 대신 근왕주의(勤王主義) 또는 엘리트주의를 내포한 역사인식의 범주들이 더욱 중요해졌다. 민중이 퇴조한 자리에는 탈민족적 시각이 본격 등장해 있다는 점 또한 놓칠 수 없다.

『동아시아』는 19세기 말 조선에서 나타난 근대화 담론을 ‘주체세력’과 ‘가치지향’의 두 축을 사용해서 ‘위정척사론’, ‘근왕주의적 자력근대화론’, ‘급진개화론’, ‘민중주의적 자력근대화론’, ‘시민적 자력근대화론’,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탈민족 담론과 등치된다. 탈민족 담론은 『동아시아』에 따르면 탈민중 담론이다. 탈민족적, 탈민중적 식민지근대화론은, 『동아시아』에 따르면, 근대화 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19세기 말 조선은, “갑오농민전쟁으로 민중주의와 조선의 국가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국가가 외세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기 전에, 조선의 왕실과 국가가 실질적인 개혁의 노력을 함으로써 민중과 국가의 대립을 넘어서서 자율적 근대화의 공간을 개척해야 했다”는 규범적 결론으로 책의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탈민족 담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의 등치는 적절하지 않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국가 구성원의 차이를 없애는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민족 담론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탈민족 담론은

『동아시아』가 선택한 역사주의적 관점이 실제로는 초역사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역사주의적 관점의 소산이다. 다음의 말들을 보자(윤해동 2007).

문제의 본질은 근대화나 수탈의 개념으로는 더 이상 식민 지배의 성격과 피식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탈민족 담론가들은,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 모두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추구되는 ‘발전의 논리’”임을 지적한다. 두 입론이 민족주의와 근대화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증을 동반해야 하겠지만, 윤해동이 지적처럼, “민족주의는 근대 국제 정치의 산물이다.” 탈민족 담론가들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동형성”에 대한 통찰은, 『동아시아』가 견지하고 있는 초역사적인 (국민)국가중심적 접근, 즉 근대의 틀에 속박되어 있는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지시하고 있다.

V.

역사가 반드시 일차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질 필요는 없다. 해석의 해석으로 현재적 과거읽기의 지평을 연 사례들도 있다. 『동아시아』가 당대의 문헌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역사와 이론의 교직, 종횡무진의 시간배치 등은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그러나 특정 저자에 의존하면서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동아시아』의 고유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노에 게이치, 김영주 옮김. 2009. 『이야기의 철학』.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윤해동. 2007.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서울: 휴머니스트.
- Elman, C. and Elman, M. 2001.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 Hoffman, S. 1977.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3.
- Waltz, K.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